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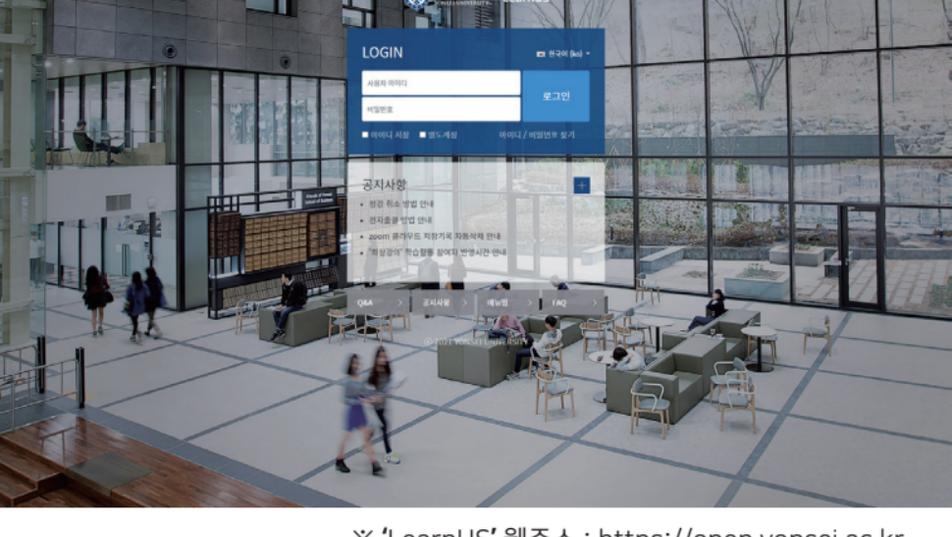
캠퍼스

비대면 수업 언제까지?

학교는 2월 초부터 일찍이, 올해 1학기를 전면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대비하였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닥쳤던 작년 1학기과 비교하면, 강의 개설이나 수강 신청 등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교수자 모두 현재 환경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의 목소리도 크다.



와이섹(YSCEC)에서 런어스(LearnUS)로



※ 'LearnUS' 웹주소 : <https://open.yonsei.ac.kr>

한편, 최근 YSCEC이 새로이 LearnUS라는 학습 플랫폼으로 개편되었다.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맞게 기능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오픈한 지 아직 얼마 안 된 까닭에 사용자들이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간간히 오류도 있어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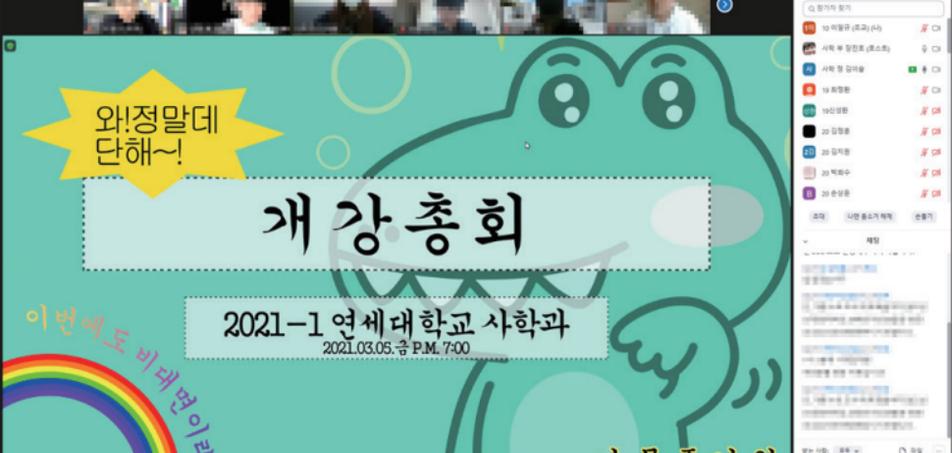


학부

21학번 입학, 3월 학부 개강총회

올해에도 어김없이 학부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비록 바로한 학번 위 선배들조차 제대로 교정을 거닐지는 못했지만, 줌(ZOOM)을 통해 후배들을 맞이해 주었다. 3월 5일 있었던 학부 개강총회에서는 학과 학생회와 자치모임, 소모임 등을 소개하는 한편, 신입생 학년대표를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신입생들과 우리 과 선생님들이 인사하는 자리인 '신입생 간담회'는 4월 중에 줌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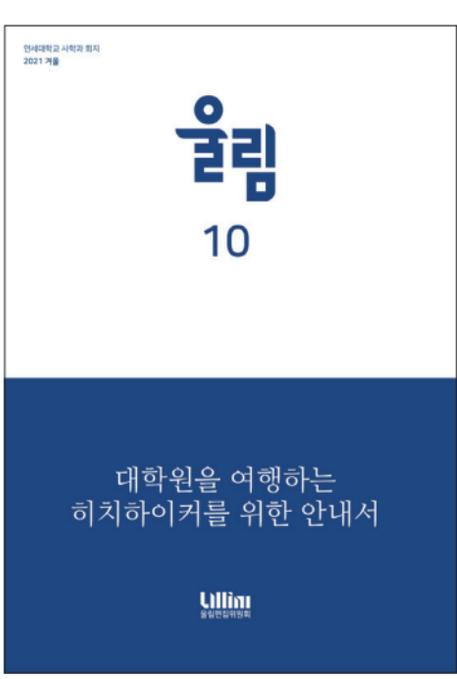
▲ 줌(ZOOM)을 통해 개강총회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학생들



『울림』 제10호 발간

우리 과 학부 회지를 만드는 학생 모임인 '울림편집위원회'에서 열 번째 『울림』을 냈다. 2016년 여름에 처음 1호를 낸 이후로 매년 꾸준히 두 권씩 회지를 만들어 어느덧 두 자리수 권호에 진입한 셈이다.

이번 호의 커버스토리에서는 대학원 진학에 관심있는 학부생을 위해 대학원생들과의 Q&A 인터뷰를 실었다.



문과대학에서 우리 과 만족도가 가장 높아

항목	학과 만족도	차원별 학과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전공교육 과정	교수 참여도	행정 서비스	(학생) 활동·참여	
2017년	3.16	3.21	3.01	n/a	n/a	3.46
2018년	3.16	3.22	2.91			3.48
2019년	3.41	3.46	3.30			3.54
2020년	3.54	3.57	3.71	3.60	3.04	3.64
'19→'20	+ .13	+ .11	+ .41	.	.	+ .10
문대평균	3.25	3.35	3.22	3.07	3.07	3.43

▲ '17~'19년의 만족도 조사 때와 항목이 다소 달라졌다. 5점 척도.

작년 12월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학부 재학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학과 학생의 만족도가 문과대학 10개 학과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공교육 과정 및 학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3년 연속 꾸준히 상승했던 것과 함께, 교수 참여도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 문과대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점수를 얻었던 것이 확인된다.



대학원

한국사 공개발표회 ·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지난 2월 18일, 한국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예비 발표회가 있었다. 석사과정생은 고고학과 고려사 2명이었고, 박사과정생은 조선후기와 근대사·현대사 분야에서 4명으로, 모두 여섯 명이 발표하고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그에 앞서 2월 15일에는, 합동연구실의 총회를 겸하여 대학원생 학술교류회(제2회)를 가졌다. 한국근대사와 일본사 전공생이 한 명씩 각기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동료들의 토론이 있었다.



※ 올해부터 「연세사학 뉴스레터」는 1년에 네 번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quarterly).

